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믿음, 일치를 향한 모험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1주 】

인도 : 이재훈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경배의 찬송	19.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삶의 고비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욕심과 내안의 상처가 우리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싶습니다.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닫아걸고 창문도 잠근 채 집안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님, 물리적 거리 두기로 인해 서로에 대한 마음과 관계의 문도 닫혀 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느 때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과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위로의 말씀	시 65:2~4a	인도자
교 독 문	115. 구주 강림(1)	다 함께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찬 양	105.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 함께
성경봉독	시 57:1~11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특 송	꽃들도	환경부
말 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 함께
찬 양	336.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 함께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평화의 인사		다 함께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불안해 말고 주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위기 없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빛으로 오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내 힘과 능력만 의지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두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삶을 새롭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순례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